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번식시킴

(금요일 — 저녁 집회)

메시지 6

교회의 확산을 위해
주님의 일의 한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탄의 계략들에서 구원받도록 주님의 공활을 받음

성경: 행 1:8, 5:20, 6:4, 7, 9:31, 12:24, 19:20

- I. 오순절날에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역대로 흘러온 신성한 생명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단 하나의 흐름이다 — 마 16:18, 비교 겔 47:1-12.
- A.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온 존재 안에서 으뜸이 되시게 하고 그분을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 되시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신성한 흐름이 되시어 우리 안에서 흐르시고 우리에게서 첫째가는 행위로 흘러 나가실 것이다. 첫째가는 행위는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에 의해 유발되고,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께에서 나와, 우리의 첫째가는 사랑이신 주님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 요 4:14하, 계 22:1, 2:4-5.
- B. 첫째가는 사랑에 의해 유발된 일만이 금과 은과 보석이다 — 고전 2:9, 3:12.
- II.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은 교회가 영원하고 우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교회의 성장과 건축은 확산에 근거를 둔다 — 행 1:8, 8:1, 9:31.
- A. 교회의 확산은 주님의 생명의 성장과 주님의 생명의 흘러 나감, 곧 생명의 흘러넘침에 의해 일어난다 — 엡 4:16, 요 7:37-39, 행 2:42, 46-47, 5:20, 6:4, 7, 12:24, 19:20.
- B. 교회가 확산되기 시작할 때, 잘못된 관념들은 그것이 지역에 관한 것이든, 인종에 관한 것이든, 서로의 차이점에 관한 것이든 모두 산산조각 난다. 우리의 단혀 있는 모든 생각은 바로 교회의 확산에 의해 제거된다 — 비교 고전 12:24, 골 3:10-11.
- C. 사도행전 8장은 교회의 확산의 첫 단계가 사마리아(1-25절)였고, 둘째 단계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26-39절)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교회가 우주적이고 또한 확산될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각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계 5:9-10, 7:9).
- D. 사도행전 9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념과는 반대로 사울(후에 바울)을 선택하신 것을 보여 준다. 우리의 좁고 잘못된 인간적인 관념은 교회의 확산을 통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야 한다.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다음 시간에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 행 9:10-22.
- E. 사도행전 10장은 주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땅에서 움직이시는 것이 하늘의 보좌에서 수행되는 그분의 행정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또한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의 사망으로 복음이

확산되어 온갖 부정한(죄악된)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피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으로 씻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행 10:11-12, 15, 28, 비교 히 8:1, 행 7:56.

- F.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 신언자들과 교사들 다섯 명이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들이 각기 다른 배경과 교육과 신분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것은 교회가 사람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인종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들과 기능들은 그들의 타고난 신분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 행 13:1, 4:36, 롬 16:21, 눅 9:7-9, 행 22:3.
1. 그리스도의 몸의 이 신실하고 추구하는 다섯 지체들을 통해, 주님은 그분의 일과 움직임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셔서 이방 세계에 왕국 복음을 확산하는 큰 걸음을 내디디셨다.
 2.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늘에 계신 머리와 땅에 있는 신실하고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의 동역을 통해서 그 영에 의해, 그 영 안에서, 그 영과 함께 이루어진 움직임이었다 — 행 13:1-4.
- G. 사도 바울은 복음을 확산하기 위한 제일 차 여행에서 키프로스로 갔고, 그런 다음에 소아시아로 가서 많은 지방에 교회들을 세웠다 — 행 13:1-14:28, 계 1:4.
- H.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선 후, 유럽으로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제이 차 사역 여행을 계속했다 — 행 15:35-40, 16:6-18:22.
- I. 바울의 제삼 차 여행은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브루기아, 에베소,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다 — 행 18:23-21:17.
- J. 바울의 제사 차 여행은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다 — 행 27:1-28:31.

III. 우리는 반드시 교회의 확산과 건축을 좌절시키려는 사탄의 계략들에서 구원받도록 주님의 공활을 받아야 하며,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시대의 흐름 안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 비교 히 4:16, 애 3:22-25.

- A. 우리는 반드시 외적이고 죽은 규례와, 인간의 의견과, 낡은 관념을 가진 자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주님의 공활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것들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가 교회가 건축될 수 있는 정도이다 — 롬 5:10, 빌 1:19-21상, 2:12-16, 행 15:1-12, 갈 2:21, 5:1, 2:4.
- B. 우리는 반드시 베드로의 사례에서 공과를 배워서, 우리의 종교적인 전통과 낡은 배경이라는 너울에서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을 보고 그 이상 아래 살며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 — 행 10:9-16, 갈 2:11-14.
- C. 우리는 반드시 바나바의 사례에서 공과를 배워서, 인간적인 의견과 타고난 관계에서 구원받아야 한다.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동역자들 간에 일어나는 다툼은 형편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 — 행 13:13, 15:35-40, 골 4:10.
- D. 우리는 반드시 아볼로의 사례에서 공과를 배워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관한 완전한 계시가 부족한 사역에서 구원받아야 하고, 시대의 사역과 완전히 하나 되지 않는 데서 구원받아야 한다 — 행 18:24-19:2, 고전 1:12, 16:10-12.
- E.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바울의 사례에서 공과를 배워야 한다. 이 절들은 일꾼들이 어떤 곳에 간 후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움

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를 보여 준다. 옛 관계, 옛 애정, 옛 경향, 옛 관념은 우리가 내주하시는 영의 내적인 인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1. 성령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막으셨고, 예수님의 영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은 우리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하며, 예수님의 영은 우리에게 허락하기도 하시고 허락하지 않기도 하신다.
2. 성령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은 “가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우리를 보내시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

F.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사례에서 공과를 배워서, 몸의 생활을 실행하고 그 영께서 몸의 지체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머리로부터 오는 말씀처럼 그러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 행 20:23, 21:4, 7-8, 11-14.

G. 우리는 반드시 야고보가 잘못을 범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혼합으로 황폐하게 된 사례로부터 공과를 배워야 한다 — 행 21:18-26, 마 22:7, 24:1-2.

1.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될 수 있는 생명의 법에 대해 말했다(렘 31:31-34), 바울은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에 대해 말했다(롬 8:2, 4, 6), 야고보는 문자로 된 율법을 귀히 여기고 높였다(행 21:20).
2.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을 말했다. 이러한 생활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몸의 생활을 산출한다 — 갈 2:20, 빌 3:10.
3. 신성한 계시의 빛 가운데서 볼 때, 야고보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계발이 아니라 자아 부인이다.
4.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에 열성적인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자랑했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열성적이었다 — 행 21:20, 빌 3:6-14, 골 1:18하.

H. 우리는 반드시 바울의 사례에서 공과를 배워서, 유대교적인 실행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혼합시키는 데서 구원받아야 한다. 그러한 혼합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 행 21:18-27, 31, 36, 히 10:29.

I.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서 구출받기 위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의 노정을 마치려고 했던 것에서 반드시 공과를 배워야 한다 — 행 22:25-29, 23:10-11, 25:8-12, 26:32.

1. 바울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 원했지만, 주님의 사역을 가능한 한 더 수행하기 위해 여전히 오래 살기를 힘썼다 — 행 20:24.
2.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으로 바울을 구출하시어, 모든 위험한 상황과 함정에서부터 그를 분리시키고 조용한 감옥으로 보내셨다. 이것은 바울이 가이사라(행 24:27)에 있을 때나 로마(28:16, 23, 30)에 있을 때나, 그에게 조용한 환경과 시간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 결과 그는 그의 후기 서신서들을 통해, 자신이 주님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비밀에 대한 계시를 역대에 걸쳐 교회에게 남김없이 해방할 수 있었다.
3. 역대로 교회가 이러한 서신서들에서 받은 유익과 이익을 다 헤아리려면 영원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행 25:11과 각주 2 참조).

IV.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 유일한 몸을 위해 우주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 — 고전 3:12, 15:58, 16:10, 엡 4:11-16.

- A.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일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건축함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건축에 이르는 것이다 — 엡 2:21-22, 고전 16:10.
- B. 오늘날 네 종류의 일꾼들이 있다.
 - 1. 첫째 종류의 일꾼은 현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적합한 동역자들이다. 이러한 일꾼들은 주님께 처리를 받고 한마음 한뜻 안에 있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이다.
 - 2. 둘째 종류의 일꾼은 좀 더 젊은 동역자들이다. 그들은 기꺼이 연장한 동역자들의 지시를 받고, 그들과의 동역 아래 있으며, 겸손하게 따르고 배우려고 한다.
 - 3. 셋째 종류의 일꾼은 앞선 동역자들에게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교파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계속 우리와의 교통 안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 4. 넷째 종류의 일꾼은 교파에 있는 설교자들과 자유 전도자들이다.
- C.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은 첫째와 둘째 종류의 동역자들이다. 셋째와 넷째 종류의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그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길을 가도록 정하지 않으셨으므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히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
- D.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간섭할 수 없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허물지도 않을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첫째가는 사랑과 첫째가는 행위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계 2:4)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두려운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일에서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왜 일하고 수고하며 인내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비록 많은 일들이 다 주님께 속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마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가? 어쩌면 많은 때 우리는 임의로 일을 하면서 주님은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자문하기를 원하신다. 안타깝다! 우리는 일을 할 때, 결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지 않는다! 다만 습관으로 인한 것일 따름이다! 다만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일이 많고 크고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칭찬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은 결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물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한 것이 얼마만큼 있느냐는 것이다. 오직 주님의 사랑의 격려를 받은 일이라야 금과 은과 보석이다. 그 밖의 일은 얼마나 중대하고 많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부지런히 했는지를 막론하고 모두가 나무와 풀과 짚이다. 태우는 것 외에는 결코 다른 용도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심판대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기 바란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심판하시고 날마다 빛을 더 밝게 비추셔서 우리의 동기를 드러내시기를 원한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위험하다. 성도들이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으로 충만할 때 그들이 한 모든 행동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동기 외에는 결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뜻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마치 주님을 만질 수 있는 듯하다. 주님을 위해 눈을 빼 드릴 뿐 아니라 심장까지도 기꺼이 빼 드리려고 한다. 그러나 시간과 환경이 바뀔 때, 세상의 아름다움의 유혹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

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는 어제 한 것을 오늘도 여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동기는 바뀌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의 사랑의 격려와 재촉함이 없다. 많은 사람이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흐릿하고 베일을 통해 보는 듯하다. 이때 주님의 사랑은 더 이상 전과 같이 신선하지 않고 우리를 강권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다만 생각 안에서 주님의 이전의 사랑을 기억할 따름이며, 주님의 사랑은 이미 현재의 매력이 되지 않는다. 맑은 하늘과 밝은 해가 홀연히 어두운 먹구름의 그림자로 가득 덮였다! 물론 우리의 뜻은 우리가 날마다 감정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주님께서 첫째가는 사랑을 잃지 말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항상 새로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비록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분을 만족하시게 할 수 없다. 신혼부부가 처음에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신다.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영원한 '밀월'을 갖기를 원하신다. 많은 일과 수고와 인내는 모두 그분을 만족하시게 할 수 없다. 심지어 완전한 일과 수고와 인내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것들 역시 그분께 인정받을 수 없다.

5절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계 2:5)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황폐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주님은 그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그들이 예전의 상황을 기억하고, 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애 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들이 애 통해하면서, “나는 내가 전과 같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수개월 전같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기를 원하신다. 예전의 상황을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회개와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은 부흥의 첫 번째 단계이다. 처음의 체험을 생각하는 것은 처음의 위치를 회복하게 한다. 넘어진 성도들은 ‘기억하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사람들의 안목에서 완전한 교회가 주님의 평가에서 비추어 볼 때 ‘타락한’ 교회일 뿐이다! 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많은 활동을 칭찬하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타락한 사람이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다!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위치는 결코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에 달려 있다. 물론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있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일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다면, 우리는 바로 타락한 사람인 것이다. 아담이 타락했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더욱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은 교회 역시 타락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의 빛을 통하여 자신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가 전에 실패한 것을 아직 회복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외면적인 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할지라도 영적인 상태는 이미 크게 손상을 입은 것이다. 만일 어떤 실패를 아직 주님 앞에서 자백하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시기를 구하지 않았다면,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는 아주 진보가 있을지라도, 사실 이러한 날들은 전부 헛되이 지나간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다면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우리 앞의 노정을 다시 새롭게 가야 한다. 만일 우리가 떨어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행함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떨어진 이후의 생활은 다 헛된 노정이고 하나님께 전혀 계산되지 않는다. 어느 곳에서 떨어졌다면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떨어진 후에도 여전히 평상시처럼 활동한다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초가 이미 흔들렸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의 본성을 회상하고 어떤

길을 따라 뒤로 물러나게 되었는지를 회상하여, 처음 시작된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개인이 이와 같을 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현재의 참된 상황을 알고자 한다면, 오순절날 사도들이 있던 때의 교회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의 교회가 타락했는지 아니면 전진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에베소 교회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했던 것처럼, 지금의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역시 이 단계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회개하여!” 이것은 기이한 말씀이다! 교회가 회개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의 회개와 교회의 회개는 크게 다르다. 후자는 이미 보배로운 피로 씻어졌고 성령에 의해 거듭났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죽은 행위를 후회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교회에게는 생활에서 더럽혀진 것이 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있으므로 교회는 이전의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일곱 교회 가운데서 주님은 다섯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 회개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필요이다. 바쁘게 일하고 수고하며 인내하는 것은 그래도 쉬운 것이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며 또한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허공을 치는 일들이 비록 우리의 시간과 힘을 소진할지라도 우리에게 겸손해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육체는 그것을 견딜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사람에게 명성을 얻게 해 줄 수도 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자백하는 회개는 육체에게 그 힘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아 갈 뿐 아니라 그 영광도 벗겨 낸다. 또한 그렇게 회개하기 위해서는 체면을 버리고 사람들의 칭찬도 체쳐 두어야 한다.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모두 주님을 마지못해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우리를 겸허하게 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성취들을 희생하게 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러한 종류의 회개는 우리를 너무나 당혹스럽게 만든다! 죄인이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성도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면 그의 스스로 의로운 마음은 크게 동요한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무는 복종하는 자녀, 순종하는 노예가 되는 것이다. 비록 공허한 일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과 세상의 칭찬을 조금 얻을 수 있게 하지만, 만일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만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직 만족되지 않았다면, 비록 우리에게 완전한 자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려야 한다. 만일 성도들이 주님과 동일한 안목을 갖고 있다면 그들의 회개는 지금처럼 적지 않을 것이다! 성소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을 아직 기쁘게 해 드리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도대체 그 일은 누구를 위해 한 것인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님의 안목을 이해하고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현재의 일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이 공허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어찌 슬프고 아픈 마음과 통회하는 영이 없을 수 있겠는가? 자연히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대가, 곧 자신을 낮추고 영광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다!

“첫째가는 행위를 하여라.” 이것이 회개의 결과이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이 없게 된다. 자신을 책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전과 같을 것이고 새로워지지 못할 것이다. 만일 회개하면 처음의 느낌이 회복될 뿐 아니라 첫째가는 행위를 하게 된다. 첫째가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다만 외면적인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수고’ 또한 아니다. 이것 역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인내’도 아니다. 이것 역시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열심히 죄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거짓된 것을 대담하게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며,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미 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여전히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네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무엇이 ‘첫째가는 행위를 하는 것’인가? 주님은 왜 그들에게 첫째가는 행위를 하라고 하시는가? 그들의 행위가 이미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이미 칭찬을 얻은 것이 아닌가? 만일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신 행위가 아니라면 ‘첫째가는 행위’는 무엇인가? 첫째가는 행위는 걸음으로 볼 때,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미 행한 것과 아무 차이가 없다. 다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과 목표가 다를 뿐이다. ‘첫째

가는 행위'는 다른 행위들과 같지만 그것을 하게 하는 동기가 다르다. '첫째가는 행위'는 '첫째가는 사랑'으로부터 나온 일이다. 한 성도가 첫째가는 사랑을 잃기 전과 후에 행한 일들이 비록 완전히 같을지라도, 그 속의 다른 동기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든지 혹은 칭찬을 하실 것이다.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가득하여 한 일은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에 대하여 그분은 책망하시는 것이 없다. 비록 겉으로 볼 때 과거 때부터 행하던 것을 계속하거나 별 차이가 없을지라도 첫째가는 사랑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며 그것에 따라 심판하신다. 훗날 심판대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무와 풀과 짚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그러한 일들은 모두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동기는 어떠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이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행한 것처럼 무릇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일이 아닌 것은 비록 많고 완전하고 중대할지라도 여전히 책망받는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 나머지의 일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고 '첫째가는 사랑'과 '첫째가는 행위'의 관계를 본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온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엡 4:15-16) 이것이 '첫째가는 사랑'과 병행하는 '첫째가는 행위'이다. '첫째가는 행위'는 결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각 마디'가 하는 것과 같이 은밀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보시는 행위는 결코 외면적으로 위대하거나 중요한 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으로 영향력이 있는 일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랑으로 인해 하는 일이 없게 된다. 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될 것이고, 조화 가운데 결합되고 짜일 것이며, 결코 의견의 불일치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비록 교회가 이미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고 첫째가는 행위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머리와 연결되어 모든 일에서 그분 안으로 자라서 공급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무릇 머리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다 '첫째가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교회의 황폐함을 본다. 첫째가는 사랑과 첫째가는 행위가 모두 사라졌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낮추고 죄를 자백할 때이다. 주님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부르신다. 은혜의 문은 여전히 크게 열려 있다. 우리는 마땅히 속히 나아와야 한다. 주님께 감사드리자. 주님은 많은 성도들이 기꺼이 모든 조직을 떠나고, 첫째가는 사랑을 붙잡을 뿐 아니라 첫째가는 행위를 다시 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 성도들을 포함하여 교회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려서 지금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데에 이른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물론 더욱 슬픈 일은 어떤 이들은 타락한 후에 여전히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가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까지 타락했는가? 바울은 처음부터 에베소의 성도들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위험을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기도를 하였다. 그리스도인이 일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참된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째가는 사랑을 체험했지만, 계속 끊임없이 날마다 불타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있는가? 나는 몇 년 전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식어져서 오늘날 이미 냉담하게 되었을까 봐 두렵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울의 기도의 말은 이러한 타락의 원인을 보여 준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엡 3:17). 기초가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갈 수 없다. 만일 우리의 사랑이 뿌리가 있는 나무나 터가 있는 집과 같다면, 우리의 사랑은 날마다 '첫째가는 사랑'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뿌리와 터는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사랑에 뿌리가 있고 터가 있기 위한 근원이다. 우리의 가장 큰 위험은 비록 많은 영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체험이 없다는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 데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이러한 체험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엡 1:5-8)을 받았지만, 아직 이 사랑이 그들의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거나 터를 잡지 못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셨는가? 우리는 절대로 성급하게 이 질문에 답변해서는 안 된다. 이미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거나 추측해서도 안 된다. 이 질문으로 인해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분께 기도해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잠잠하지 않는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엡 3:17). 전일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 우리의 사랑은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게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될 것이다’(엡 3:18).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분량을 깨달을 수 있다. “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어”(엡 3:19). 그러므로 시일의 경과를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낼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주님의 사랑을 접촉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욱 안정되고 변함없는 영적인 상태를 바라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의 집 안에 거하는 생활이 놀랍지 않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족과 보호가 되시기를 원한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노정을 많이 갔거나 그 종착지에 이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인의 노정의 시작부터 있는 것이다. 이 사랑은 ‘첫째가는’ 사랑이다. 이 행위는 ‘첫째가는’ 행위이다. 젊은 믿는 이들은 쉽게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 외에는 마땅히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요 4:13-14상)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생활의 허세는 모두 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다시 목마름으로 인해 또다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은지! 세상은 그 고뇌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기만 하면, 그분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지!

만일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직 주님의 사랑을 떠난 적이 없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첫째가는 행위를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분명 재 가운데 엎드려 우리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생각할 때 자연히 괴로워하게 된다. 그분을 위한 우리의 증거는 약하고 흔들린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죄를 자백한다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과 축복을 주실 것이다. 헛되이 우리의 실패만을 되새기는 것은 우리에게 첫째가는 행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을 부른다면, 우리의 승리는 분명한 것이다. 겸손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다. 실로 주님은 우리를 부흥시키실 수 있다.

그런 후에 주님의 경고가 있게 된다. 교회가 이미 첫째가는 사랑을 버리고 첫째가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갈 것이며,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너의 등잔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계 2:5) 이것은 얼마나 엄중한 말인가! 만일 주님께서 친히 권면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할 수 없다면, 어떤 것도 당신의 실패와 타락을 바꾸어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심판 외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더 이상의 방식이 없을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4권, 기독교도보(2), 2장)